겨울의 조잔케이 온천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삿포로시 러시아국제교류원 사조노흐 막심입니다.

인구가 백만 명을 넘는 세계 도시 중에서 삿포로는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이 도로에 산만큼 쌓여 걷기 힘들 정도로 길이 좁아져 버립니다. 쌓인 눈이 신발에 들어가 발이 젖거나 나뭇가지에서 후드득 눈이 머리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이 많이

내리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는 재미가 많습니다. 도시 주변에 있는 스키장에서 스키, 스노보드를 타거나, 눈사람 만들기, 눈축제의 독특한 분위기를 맛보거나 등등. 이 외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겨울의 삿포로에서 가장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온천에 가는 것입니다.



삿포로 시내에는 온천이나 센토 (대중목욕탕)가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조잔케이'라는 온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조잔케이는 아주 조용하고 평온한 곳입니다. 삿포로역에서 버스로 1 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조잔케이에는 호텔 등이 많이 있어 누구라도 취향에 따라 마음에 드는 호텔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일치기로도 갔다 올 수 있고 물론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료칸'이라고 하는 일본식 호텔에 묵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박이라도 일본 다운 곳에서 지내보는 건 어떠세요? '유카타'라고 하는 기모노를 입고 시내의 가게에서는 평소 먹을 수 없는 일본 요리를 먹거나, 온천욕을 즐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이지요.

'료칸'에는 실내 욕탕이나 노천탕 등 다양한 종류의 욕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겨울밤의 노천탕을 제일 좋아합니다. 끝없이 조용하게 눈이 내리고,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풍경입니다. 따뜻한 온천수로 몸을 씻어내리면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전부 풀립니다.



온천에 몸을 담그고 나서 푹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최상의 컨디션 회복에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 중심부와 가까워 천천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 중심부로 돌아오면 이렇게 큰 아름다운 자연에 혜택을 받은 조용한 곳이 있다는 것 에 또 놀랄 것입니다. 조잔케이에 가면

가까이에 시끌벅적한 도시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있으면 조잔케이에 꼭 한번 가보세요. 단, 가기 전에 호텔 예약을 잊지 마세요! 조잔케이는 삿포로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힐링 공간이기 때문이니까요.

* 사진은 삿포로시 홈페지이에서

조잔케이 온천 (어서오세요 삿포로 홈페이지 내)

<일본어>

http://www.welcome.city.sapporo.jp/find/nature-and-parks/jozankei_onsen/

< English >

http://www.welcome.city.sapporo.jp/find/nature-and-parks/jozankei_onsen/?lang=en <한국어 >

http://www.welcome.city.sapporo.jp/find/nature-and-parks/jozankei_onsen/?lang=ko <중국어 간체자>

http://www.welcome.city.sapporo.jp/find/nature-and-parks/jozankei_onsen/?lang=cn <중국어 번체자>

http://www.welcome.city.sapporo.jp/find/nature-and-parks/jozankei_onsen/?lang=tw